



전주매일



개표방송 시청하는 민주 전북자치도당과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1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가운데) 위원장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일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북 투표율 62.7%

지난 2022년 지선보다 14.1%보다 높아... 도민 정치 참여의식 회복
사전투표 35.05% 기록, 본투표 진행도 순조... 최종투표율 60%대 성과
도지사 후보 접전, 전국 관심사로 급부상... 유권자의 선택 의지 표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 62.7%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보다 14.1% 높은 수준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북 전체 선거인 수 150만9,854명 중 94만,65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사전투표에는 53만3,442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과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6%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치적 무관심이 우려됐던 것과 비교하면, 도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크게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수년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해 왔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투표율은 59.9%, 2018년 제7회 지

방선거에서는 65.2%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효능감 저하와 선거 관심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48.6%까지 급락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전 투표부터 35.05%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고, 본 투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최종 투표율이 62.7%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시군별 투표율은 전주 완산 59.2%, 전주 덕진 59.6%, 군산 57.9%, 익산 58.2%, 정읍 68.7%, 남원 68.5%, 김제 65.8%, 완주 63.8%, 진안 77.6%, 무주 73.8%, 장수 78.3%, 임실 76.5%, 순창 79.5%, 고창 77.7%, 부안 70.7%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참여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높은 투표율의 배경으로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경쟁과 선거 구도를 꼽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도민 후보'를 자임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 간의 열치러워치락하는 접전이 형성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영대 국회의원의 낙마와 이원택 국회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로 인해 비계 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2곳의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도민의 더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도 치열해

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 등으로 유가 위기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국가 예산 확보, 첨단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전북 정치 발전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쟁의 시간은 지나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시간이 시작됐다.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패배한 후보자들을 보듬어 안고 함께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힘을 모을 때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도 한층 발전하고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취재반

2500억 규모 국지도 건설 본격

도, 교통인프라 확충 '속도' 순창~구림 등 추진상황 점검
교량 등 대규모 SOC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국지도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며 전북 교통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와 부전~칠보 국지도 시설개량공사 현황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공정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둔 국지도 건설사업의 현장 여건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토지 보상과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251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으로, 교량 12개소와 장대터널 등이 포함돼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효과가 기대된다.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는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월정리를 잇는 국지도 55호선 9.14km 구간을 넓히

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211억 원이 투입되며 교량 6개소 설치와 도로 선형 개선 등이 이뤄진다. 해당 노선은 강천산과 섬진강권 관광 접근도로 기능을 맡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와 도로 협소 문제로 장비 요구가 제기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접근성 향상과 물류 이동 효율 증대, 주민 통행 편의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부전~칠보 국지도 시설개량공사'는 정읍시 부전동과 칠보면 시나리를 잇는 국지도 49호선 10.92km 구간을 순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2억 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장비 요구가 계속된 곳으로, 사업을 통해 교량 6개소와 터널 1개소가 들어서면 통행 안전성과 이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별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하고, 도로구역 변경, 편입 토지 보상 공사·감리 용역 발주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간 연결도로 기능 강화와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생활권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태호 기자

